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9월 20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5장 13-16절

교제목 :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예수님께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이란 기본적으로 영역주권적 삶입니다. 영역주권이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곧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3:13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명령적 차원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직설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역시 너희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갖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결코 변질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영역주권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과 빛은 하나님의 대리자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로 번역된 헬라어는 각각 다릅니다. 본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의’ 소금이요, ‘우주의’ 빛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란 표현 자체가 내포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란 보편적 의미가 더 큼니다. 결국, ‘세상의’가 내포하는 의미는 카이퍼의 말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단 한 평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세속화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 고백은 교회와 세상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역주권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영역주권적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은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일반 은총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며 사랑이며 보살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롬 1:19-20에 보면 바울은 일반은총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표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소한 신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지식에는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선 내면적인 것은 초월자에 대한 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첫 부분에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본능’ 즉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면적인 신지식 외에, 외면적인 신지식으로 자연계시가 있습니다. 인간은 좋은 경치를 보면, 은연 중에 창조주의 존재를 생각하고, 장엄한 자연현상 앞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악이 영원하지 않다’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간섭하셔서 인류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양심적으로 압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반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지만, 어떻게 계속해서 이 세상이 유지 발전되느냐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일반 은총 때문입니다. 카이퍼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편적 규범과 더 나아가 절대적인 보편적인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진선미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반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

금의 맛이란 소금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짠 맛이 아니라(요6:6), 소금의 특성, 기능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치료제의 역할을 합니다.(겔16:4) 소금은 희생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을 정결케 하는 목적으로 소금을 뿌렸습니다.(레2:13) 결국 소금의 맛이란 이런 소금의 기능과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일반은총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금적 기능은 세상에 참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유지키시고, 세상의 보편적 규범을 해체하려는 세상의 부패를 치료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일반은총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색채를 띄는 삶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윤리적,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윤리적, 도덕적, 규범적이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마5:14-15**에서, 빛이란 존재의 특징은 숨기지 못하고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빛의 특성은 밝히 드러남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빛된 삶이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자신이 덕을 쌓거나 윤리적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마5:16)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까? 마 5:16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는 것과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빛과 착한 행실은 소금과 빛된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금과 빛된 삶을 비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비치게 하여’**, **‘보고’**란 단어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용어로 선교 혹은 전도이고, 저는 ‘소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설득이 안된다고 소리를 높이면 상대방이 거부하는 시대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리를 높힐수록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보여 주면 설득**이 됩니다. 이것이 저는 ‘비치게 하고’와 ‘보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세상에 비추면, 보여주면, 우리가 소리치지 않아도,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는 지혜를 가지고 비치게 하고, 보여주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소통의 전략이요 곧 전도, 선교전략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비치게 하고’**, **‘보게 하는’** 것에 대한 소통의 실패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면 반드시 교회는 다시 부흥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일반은총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세상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비추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세상의 소금과 빛됨을 통해 하나님을 비추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구역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